

추억을 나누며 소명을 보듬는 40대들의 콘서트

응답하라 4150!

“교회오빠 밴드”와 함께 하는 추억여행
다민족 선교의 꿈을 품은 세계 각국의 민요 합창
같이보는 40대의 일기 “꿈을 그린다.”
부름 / “나는 선교사다.” - 송요한 선교사
응답 / “우리도 선교사다.” - 모든 40대 선교회원

교회 안팎의 모든 이들을 초대합니다.



2016년 4월30일 토요일 오후8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본당

주최 : 퀸즈장로교회 40대 선교회 (아굴라, 브리스가, 바울, 마리아 선교회)

광고 아가페 제386호 · 2016년 4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 718) 358-7789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퀸즈장로교회

아가페 agape 2016.4



성경적 어머니상,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와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 배움으로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어머니

주님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학교

4월25일(월)-27일(수)
오전 9:30-오후 2:30

사순절을 마치며 진짜사나이 / Yes I Believe
기도할 수 있는 특권

QPEM Orison Ministry Update

전곡, 국제전도폭발 D. Kennedy Award 수상

부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밤/가상칠연
부활절 칸타타/증인들의 고백이 드리는 감사의 기쁨
믿음, 소망, 사랑의 봄에 피어난 부활의 첫 열매



담임 김성국 목사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희망을 심는 농부(農夫)

4월, 봄의 향기가 온 땅에 진동합니다. 4월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파종(播種)의 계절입니다. 뿌리는 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어느 농부도 자기가 봄에 뿌린 작은 씨앗을 가을에 그대로 집어 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가을에는 뿌린 것과는 견줄 수 없이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기에 농부들은 이 봄에 받을 갈아 씨를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 4월에 뿌릴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희망입니다. 찬란한 봄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춥고 얼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곳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구어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 머지않아 풍성한 희망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냐”의 작가 에리히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Homo Esperanse)로 정의하였습니다. 라틴어 Homo는 흙이라는 단어 Humus에서 온 단어로 인간을 뜻하고 Esperanse는 희망을 뜻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출발하였으나 “희망하는 자”가 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자”가 인간 이라면 “희망을 심는 것”은 인간의 삶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을 희망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을 심는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묵묵히 희망을 심는 농부, 이 4월에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
빈센트 반 고흐
1888년 캔버스에 유화
오테를로 크렐러 뮌헨 미술관 소장

만화로 보는 성경이야기 | 무지개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가 올 것이니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배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보내준 동물들과 노아 가족은 배를 탔어요.



The fragrance of the season of Spring is all around. April is the season when farmers start to sow seeds. Though the seeds they sow are small, when the Fall comes, the seeds are not harvested as they are. The farmers do not harvest the seeds but rather the abundant crops and fruits which are yielded from the seeds. This is the reason why the farmers do not spare any efforts on plowing the fields and sowing seeds during the season of Spring.

We, though not farmers, are Christians, who have seeds to sow during this season of April, as well – the seed of hope. There are still many places that are disproportionate with the brilliance of the season of the Spring, places that are filled with coldness and frozenness. If we do not give up but continue to sow the seeds of hope, we will soon gather fruits of hope.

The author of a book, “To Have, or To Be,” Erich Fromm defined the man, as “Homo Esperanse,” The word, “Homo,” originates its meaning from, “humus,” the earth, to mean, “man.” The word, “Esperanse,” means hope. Homo Esperanse, therefore, means that man started from his condition as dirt of the earth, but his identity can be found from its character in that it, “hopes.” If a man, “hopes,” then the life of a man must sow “hopes.”

Where can true hope be found? Romans 15:13 in its living translation, translates,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in believing, so tha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you may abound in hope.” This is true. God is the source of the hope. Only those who put their hope in God, who is the source of hope, can be farmers who put true hope in this world. In this season of April, we hope to see such hope sowed for God’s kingdom.

Farmers who sow hope

播撒盼望的农夫

春天季节的香气充满着四周。四月份是农夫开始播种的季节。虽然他们撒的种子是微小的，但当秋天来临的时候，没有一个农夫会收割到一样微小的谷物。因为它们不再是种子，而是丰盛的庄稼和果实。这就是为何他们会不遗余力的在春季里耕田和撒种。

我们基督徒，虽然不是农夫，但是在四月的季节里，也有种子要播，那就是盼望。仍有很多地方没有春季的显露，只有寒气与冰冷。如果我们不放弃，继续不断地播盼望的种子，那我们终究会收割盼望的果实。

“拥有或成为”此书的作者 Erich Fromm 把男人定义为 “Homo Esperanse”。“Homo”此字的意思起源于“humus”，地上的意思，用来形容男人。“Esperanse”意为盼望。因此，Home Esperanse的意思就是男人始于地上的尘土，但是他的身份可从他的品质里发现，那就是“盼望”。如果一个人“盼望”的话，他的生命就必播撒“盼望”。

哪里可找到真正的盼望？罗马书15:13，“但愿使人有盼望的神，因信将诸般的喜乐、平安充满你们的心，使你们借着圣灵的能力大有盼望。”这是真实的，神是盼望的源头。唯有那些把他们的盼望放在神里面的，才会成为播撒真实盼望在这个世界里的农夫。在这四月的季节里，我们盼望见到此景。



3월 6일
왕(王)보다 주(主)
 다니엘 1:1-7)

혼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의 답을 얻기 위하여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한다.

세상의 왕과 주님 중에 누가 더 위대한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1. 주님만이 견고하시다

이 땅의 왕은 영원하지 않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주님만이 영원히 견고하시고 안전하시다(시 102:25-28). 내 인생의 견고함은 영원히 견고하신 주님에게 내 영혼의 닦을 내릴 때만이 가능하다.

2. 주님만이 행복이시다

느브갓네살 왕이 하나님 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바벨론 시날 땅에 갖다 두고 승전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 말씀하신다(단 1:2). 세상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니엘서는 모든 일의 결론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 있음을 계속 알려준다. 세상의 모든 자는 복 받길 원하다. 진정한 복은 보물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주님에 있는 것이다(시 16:1-4). 주님 그 분 자체가 나의 복이다.

3. 주님만이 주인이시다

바벨론 왕은 포로 중 귀족출신의 출중한 소년들을 뽑아 훈련시켜서 후에 바벨론 왕국을 위해 사용하려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소년의 이름을 환관장이 세사적인 이름으로 살라는 의도로 바꾸었다. 그러나 다니엘을 포함한 청년들은 이름을 뺏어가며 왕국의 세뇌교육에도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변함 없이 충성하였다. 왕보다 주,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축원한다.

3월 13일
뜻을 정하여
 다니엘 1:8-21

힘한 세상, 어려움과 많은 유혹, 신앙의 핍박 가운데 신앙도 지키며 성공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른 결단이다.

1. 결단

다니엘은 육적 즐거움(맛있는 왕의 진미)과 영적 유익(우상에게 가져갔던 영적인 더러운 음식)을 잘 판단하여 거절할 것을 결단하였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 육체적인 것도 거절하면 영과 육이 다 좋아진다(예: 코메디언 이주일씨의 금연문제) 영적인 것을 선택하여 육적인 것을 확실히 거절한 모세(히 11:24-26)는 120세까지 영 육간에 강건하게 산 사람이다. 다니엘은 삶의 원칙을 바로 세워 모든 유혹과 핍박도 이기어 축복을 받게 된다.

2. 실천

결심을 이루어가는 실천 과정에는 지혜롭게 차분한 방법으로 이뤄지기까지 노력하며 결단을 알려야 한다. 다니엘의 확고함의 결단(단 1:8b)에 환관장은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다(단 1:10). 그럼에도 젊잖은 거절로 미루는 환관장의 결정에 포기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자신들의 결단을 지혜롭게 보여주어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결단은 실천하기까지는 결단이 아니며 어떤 방해도 뚫고 실천함에 완성된다.

3. 축복

다니엘이 결심하고 실천함에 신앙도 승리하고 성공도 이루는 큰 축복을 받았다.

- 1) 신앙의 승리
 영적인 결심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인정하고 높이는 태도이다(삼상 2:30b). 결심을 잘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풍성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다.
- 2) 세상의 성공
 원칙이 있는 인생으로 결단의 삶을 산 다니엘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단1:18-21)

인류 최대의 문제와 문제들의 뿌리는 죄에 있다.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1. 죄와 죄의 결과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롬 3:23)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으며(사 59:2) 이로 인하여 전적인 타락과 무능해진 인간은 결국 죽고 심판을 받게 된다(히 9:27). 죄 때문에 사람에게겐 소망이 없어졌다.

2. 죄를 위한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를 처리할 방법을 정확하게 주셨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사람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면 죽는다(레 16:1-2).

죄를 지을 때마다 그에 맞는 제물을 선택하여 대신 죽여 속죄하였다.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일반인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고(레 16:32-34) 대제사장 스스로도 성결케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다(히 5:1-3).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좋지만, 반복적이고 더디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던 것이다.

3. 죄를 위한 더 좋은 방법

반복되지 않는 제물, 자신의 한계가 없는 대제사장, 누구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1)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이 묵묵히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단 번에 드러진 더 좋은 제물 되셨다(히 9:23-26, 사 53:7). 고통에도, 불공평에도, 어이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침묵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기까지 침묵의 제물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2) 더 좋은 제사장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시며 더욱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가신 더 좋은 제사장이시다(히 9:24-25, 히 4:14-16).

주님은 더 좋은 제물이시며 더 좋은 제사장이시다. 우리도 더 좋은 소망,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더 좋은 것에 소망을 둔 삶을 살아야 한다(히 9:28).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대제사장**

히브리서 9:23-28

3월 20일

인생은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단2:11a의 ‘어려운 일’ 을 당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는 절망의 탄식을 하게 된다.

1. 이들이 만난 일이 왜 어려운 일인가?

- 1) 이해 못할 일을 당함(2:5-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라 명함)
- 2) 시간이 없어서 (2:8-9절에 시간을 재촉하며 명령을 이행하게 함)
- 3) 경험한 적이 없어서(2:10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 전에는 없었다)

2.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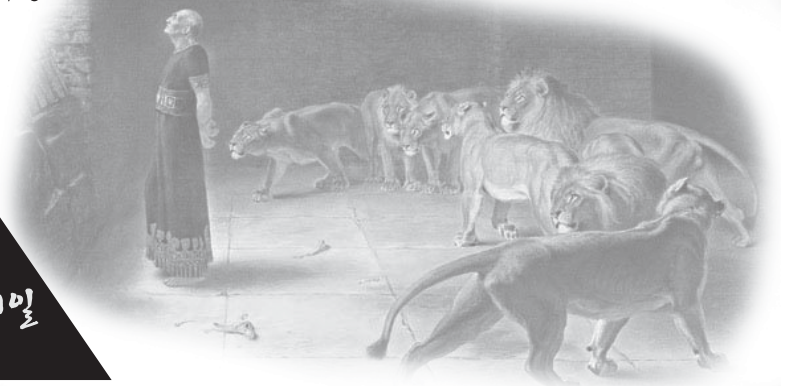
- 1)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담대히 정공법으로 대처했다
 처형 리스트에 있던 다니엘은 현장엔 없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다 살자!’ 라는 각오로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더 달라 요청하며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한다.
- 2) 하나님께 구할 때
 ‘집’ 은 단순한 쉼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한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 함께 살게 하소서’ 다니엘의 간구는 바로 우리 예수그리스도의 간구와 같다. 주님의 자리로 예수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어려운 일

다니엘 2:1-8

4월 3일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늘 안고 산다.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문제를 의탁하여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소망이 있다.



- | | |
|----------------------|----------------------------------|
| 4/15(금) 구역예배 | 5/1(주) 어린이주일/ 어린이헌신예배/월례회 |
| 4/17(주) 성경 암송대회 | 5/4(수) 지도원성경공부 |
| 4/24(주) 선교회 헌신예배 | 5/8(주) 학습, 유아, 입교, 세례 문답식 |
| 4/25-27일 어머니 학교 | 5/13(금) 구역예배 |
| 4/27(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 5/15(주) 제자훈련, 영성훈련 수료예배 |
| | 5/16(금) 효도관광 |
| | 5/22(주) 선교회 헌신예배 |
| | 5/25(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
| | 5/30(월) Memorial Day- 전교인 한마음 축제 |

종려주일의 신학적 의미와 상징성



조성운 목사

월간 아가페 제386호 목차



- 2 신앙시론-희망을 심은 농부 (農夫) | 김성국 목사
- 4 주일 설교 요약
- 7 종려주일의 신학적 의미와 상징성 | 조성운 목사
- 8 역사 위원회 | 김원도 장로
- 9 새가족위원회를 섬기며... | 남형욱 집사
- 10 112기 새가족학교 수료자 간증 | 박정숙 권사
- 11 112기 새가족학교 수료자 간증 | 이송은 성도
- 12 러시아어권 초청 전도집회 | 송요한 목사
- 14 담임목사 추천도서-팀 켈러의 기도
- 15 성례주일-학습·유아세례·입교·세례
- 16 가상칠언 | 흥한나 권사
- 18 봄에 피어난 부활의 첫 열매 | 정혜경 권사
- 20 사진으로 보는 부활절 | 진기웅 전도사
- 22 부활절 칸타타 '증인들의 고백' | 정해성 집사
- 24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간증 | 차광혁 집사, 郑丽芬
- 26 국제전도폭발 "D.케네디 상" 수상 | 최원일 집사
- 28 QPEM College Ministry-Orison | 진기웅 전도사
- 30 영아부-기도를 먹고 자라는 새싹 | 윤지영 권사
- 31 은혜의 심방-4교구 롱아일랜드지역 | 고부영 전도사
- 32 성인대학 개강예배
- 33 여선교회 연합 수련회
- 37 이모작의 새 출발을 시작하며 | 박광자 권사
- 38 3월 등록 새가족 안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한 주 전 날입니다. 그 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 백성들은 겔옷과 나무 가지(종려)를 길에 띄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 21:9).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이 중요한 사건의 신학적 의미와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의 입성

첫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보통 성경에 입성을 하는 인물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슥 9:9).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이 예언 대로 입성 함으로써 이제 더이상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숨기지 않고 공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유대 백성들도 이 말씀이 성취 된 것으로 보고 메시아를 찬양과 경의로 영접합니다.

나귀

두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말을 타고 입성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겠다는 표시였습니다 (계 19:11). 하지만 나귀는 평화의 동물이었고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는 것은 평화의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구약성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평화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 왕은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 나귀를 타고

입성한 후 왕으로 취임을 받았고 그 상징을 따라 그의 치세는 평화로웠습니다 (왕상 1:38; 4:24).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 나귀를 타고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렸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왕을 맞이 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왕은 로마 압제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를 위해 싸울 강한 용사, 승리의 왕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입성한 후 로마 총독 궁



전에 들어가는 커녕 유대 성전을 청결케하는 것을 본 백성들은 기대를 접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자들은 몇 일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칩니다. 겸손한 나귀 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함

마지막으로 이 전체 사건에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3분의 일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올라가는 길 (journey)에 초점을 둡니다. 눅 9:51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19:35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까지 누가는 그의 복음서의 약 열장을 할애하여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과 가르침들을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부르는 “Lukan Journey to Jerusalem”의 초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와 목적에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뱀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눅 18:31,33).

요한은 이것을 또 다른 시각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 공회(공회)가 그를 죽이기 위해 음모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더이상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유대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유하셨습니다 (요 11:54). 하지만 그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12:31,32).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을 위한 죽음, 그리고 3일후의 부활입니다.

결론과 적용

로마 천주교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을 많은 관례와 형식들로 전통있게, 또 화려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표한 것이므로 이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며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종교적 풍습보다는 십자가 목상과 부활의 승리를 기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 나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면서 부활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설립된 부서 <역사 위원회>가 인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교회에 3대 담임목사님이신 김성국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과 함께 많은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역사’ ‘歷史’ ‘History’ 등 각기 다른 언어로 표기 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HISTORY’는 창조주 하나님, 그의 외아들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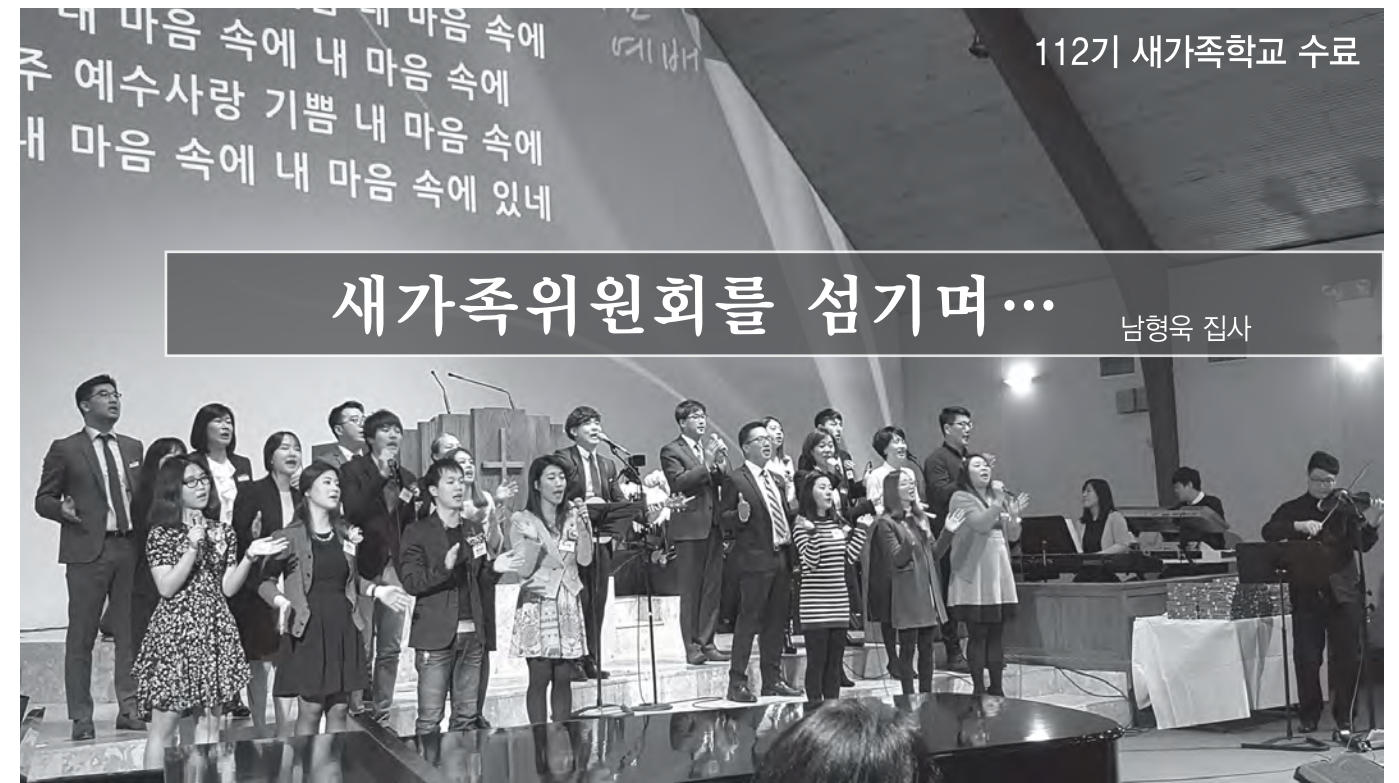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잔잔한 감동과 흥분 속에서 42년 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퀸즈장로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우리교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역사관’을 마련키 위해 ‘역사 위원회’가 조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청교도의 나라 미국 땅에서 이루신 복음주의적 이민교회의 발자취를 잘 정리하여 전시함으로 그(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History)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그리고 후대들에게는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인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역사관’ 설립에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힘입어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과업을 다함께 힘을 모아 차분히 준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위원회 준비위원 올림

김원도 장로



지난 3월13일 주일 오후예배를 제 112기 새가족학교 수료예배로 은혜 중에 드렸습니다. 이번 112기에는 어른 50명 어린이 15명으로 총 65명이 수료하였고 누계 총 3984명이 새가족학교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퀸장의 새가족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업을 위하여 또는 생업을 위하여 낯선 이국땅에 도착을 하였고 누구나 이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 지금 돌아보면 간단한 일에도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각자가 가지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퀸장에 첫 발걸음 하셨을 것이고 그때서야 말씀을 통해 고단한 이민초기의 삶이 위로 받기 시작하셨을 것이며, 기존 교우들의 따뜻한 환대와 정성스러운 밥 한 끼의 대접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도 가지게 되셨을 겁니다.

저도 뉴저지에서 우리교회를 처음 출석을 시작하면서 우리교회가 너무 좋았지만 차가 없던 시절이라 버스와 전철로 왕복 4시간의 교회 오가는 길은 너무 어렵게 여겨졌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야하나 고민할 때 즈음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어느 집사님 부부의 2년간의 헌신적인 교통편 제공이 우리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집사님 가정들의 따뜻한 식사 한 끼 초대는 이분들의 섬

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민생활의 고단함 가운데도 다시 한 번 새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퀸장의 성도라면 누구나 저와 같은 소중한 추억들이 있으실 것이고 이로 인한 예수님께로의 감사함, 교우들에 대한 감사함은 또 다른 섬김의 실천을 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 지난 42년간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모시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이어져 오고 매주 화요일이면 여선교회 분들의 정성스러운 저녁식사 준비와 남선교회 분들의 설거지 봉사와 교통편 봉사, 교역자분들의 헌신, 특별히 주일설교와는 또 다른 담임목사님의 눈높이 새 가족 성경공부는 새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첫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뉴욕의 지리 여건상 한국으로부터 오는 이민 1세대는 100년이 지나도 있을 것이며 구원함으로 예수님께 빛진 우리는 이제 새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닌 퀸즈장로교회의 성도로서 한국으로 부터만 아닌 전 세계로부터 오는 또 다른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책임이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온 교회가 열심을 다하는 우리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교회로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퀸장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함이 복됩니다



박정숙 권사

저는 2015년 8월에 등록한 박정숙권사입니다. 결혼하고 서 부아프리카에 18년 거주하다가 그곳의 내란으로 인해 온가족이 미국에 온지 12년째입니다. 그동안 저의 가족은 외국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단에 구애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미국에 와서는 저희가 거주하던 지역에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인연이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사실 저는 평신도로서 교단에 대해 별관심이 없었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청소년때는 감리교단이었으며 외국에서는 그저 장로교단이라는것만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각 교단이 지향하는 방향이 약간씩 다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WCC와 신앙직제에 대해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뜻이 다른 저로서는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섬겨온 교회의 존경했던 목사님과 가족같이 정든 교우들을 떠나 새로운 교회로 옮기는 일은 참으로 괴롭고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퀸즈장로교회로 옮겨오게된 동기는 제 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온지 10년이 넘었으나 딸은 청년의 시기를 곤고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2013년 가을 무렵부터 퀸즈장로교회로 새벽기도를 나가더니 선교로 인도하심을 받고 튜니지로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섬기던 교회 예배와 봉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퀸장 오후4부 예배에 나오고 때로는 금요 청년 모임에도 나가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는 퀸장청년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남편을 설득하여 교회를 이전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퀸장과 같이 다음세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자를 세워주고 지도해주는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힘을 얻고 은혜생활에 충만해지는 동안 저역시도 새벽기도회와 수요일예배를 나오게 되었고 시간 시간 드러지는 모든예배마다 신실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고 뜨거운 찬양으로 올려지는 충만한 퀸장의 예배의 자리에 오고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자신이 다른 교회의 직분자로서 때로는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음에도 성령충만한 가운데 전심으로 드러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자신도 어찌

할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니 제영혼도 춤추듯 기쁨이 회복되었고 꿈꾸는 듯한 새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첫사랑의 감격을 넘어 마치 날개를 단 듯 은혜의 충만함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로였기에 함께 결단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보니, 계속 두 마음을 품고 믿음생활 할 수는 없겠다 싶어 저혼자 우선 결단하고 등록하게 되어 새신자교육에도 접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역자님들도 새로 부임하시면 새가족과정을 이수하시게 되는 것이 기본 단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교회는 뭔가 확실한 체계로 가며 기본부터 밟아가는 교회구나 라는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7번의 교육을 마치는 동안 모든 제목을 따라 그동안 신앙생활해 왔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복음의 시작과 완성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되었고, 특히 의미있던 교육은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것에 대해 우리자신의 집인줄 착각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원래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차지하고 문 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깨달음을 얻게되어 저 자신의 방자함을 깨닫고 제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예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퀸장에서 섬기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주시는 담임목사님의 열정과 사역에 감사하고 존경을 드립니다. 모든 교역자님들의 신실하심과 따뜻한 섬김과 배려에 대해서도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해맑은 웃음과 사랑에도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왕을 노래하고 높이고 섬기고 전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인생의 가치를 배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화기애애한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민족의 예배를 올려 드리기를 열망하며 다민족을 위한 아름다운 새성전을 지어가고 온교회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부르심을 위해 전도하며 거룩한 꿈으로 가슴벅찬 삶을 살게되어 날마다 행복하고 매일 기대가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몸과 영혼이 소생된 새가족 공부



이승은 성도

저는 1교구 6지역의 이승은 성도입니다. 저희 가족이 작년 10월 처음 왔을 때 저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감기와 천식으로 인해 간신히 주일에 배를 드릴 뿐 새가족 공부를 시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1월부터 임마누엘 찬양대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던 자리에 임명받게 되어서 감사했지만, 주일예배 이외에 신년특별새벽예배, 수요일예배, 토요일새벽예배, 그리고 새가족 공부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신년특별새벽예배에 나와 맡겨 주신 일을 감당 할 수 있는 건강과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새가족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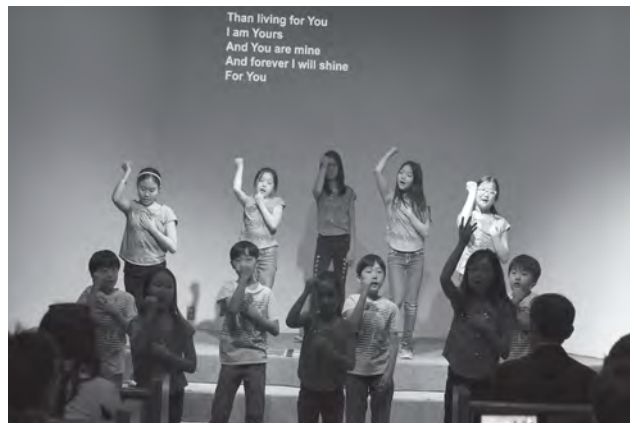
항상 피곤하고 아프고 매일 밥하는 게 힘들었던 저에게 화요일에 새가족 공부 전에 함께 하는 식사는 큰 위로가 되었고 정말 맛있었으며 아이들을 떼어놓고 공부하는 그 시간이 피난처로 느껴졌습니다. 그 화요일은 점점 저를 충전시켜주는 시간으로 변했고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구원의 확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와 성도들의 교통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부하게 되면서 퀸즈장로 교회의 성도의 한명으로서 fellowship에 동참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주님 이번 주일, 아침예배와 저녁예배 그리고 칸타타 연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덜 아프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 새벽, 비몽사몽 말씀을 듣던 중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두 다리에 마치 초강력 파스를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동안 분명 무릎 위에서 시작된 것 같았는데 점점 아래로 그 느낌이 발목 아래까지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치유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피아노 칠 때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에는 움직임 때마다 가해지던 허리에 고통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체험은 다리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제 머리와 등에도 있었으며 여러 번 예배드리는 중에 일어났고 체험 이후엔 항상 사우나를 하고 난 것보다 시원했습니다. 제 몸은 점점 회복되었고, 덜 피곤하고, 이제 더 이상

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예배 스케줄에 맞춰 가는 중에 제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갈급했던 제 영이 재충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저를 사순절 새벽기도로 인도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점점 파스한 성령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 가족의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새벽예배와 새가족 공부에 같이 나오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떼어 놓고 교회에서 피아노 치던 것이 아기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집에서 피아노 치는 내 모습을 싫어하던 큰 아이와 아직도 껌딱지인 둘째가 수요일예배도 고대하면서 따라오고, “같이 교회 갈래?” 라는 말에 한 번에 일어납니다. 자모실에서 같이 설교를 들을 때 먼저 아멘도 하고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오늘로서 7주간의 새가족 공부를 마치며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가족 학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식사로, 교통편에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을 본교회으로 불러 주시고 재미없고 우울한 날들에서 구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집의 안락과 평강을

선물한 퀸장 여러분!

송요한 목사

2016년 3월 19일은 우리교회가 다민족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날입니다. 러시아어권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작스탄, 키르기스탄 등 회교권 지도자를 그들의 새해 격인 '누르스'를 맞아 본교회로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입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각 부서에서 무엇으로 도와 줄 수 있나 의논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차량부에선 차량을 동원하여 봉사하였습니다. 어린이 경배와 찬양은 생소한 러시아 말로 찬양과 울동을 준비하며 음식은 무엇으로 그들을 대접할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교회 친교실을 꾸미고 예쁜 꽃으로 장식을 하며 러시아 풍의 벽걸이도 걸어 모양을 냈습니다.

11시가 되자 양순관은 회교권 러시아어지역의 사람들로 자리가 비좁았습니다. 13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고 예배와 경배 찬양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해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향하는 회교권 초청자들은 그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반겨 주는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에 또 놀랐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해 못하는 그들의 언어를 듣고 웃어 주는 진실한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동역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연세 많으신 퀸장님들의 한국무용으로부터 젊은 청년부의 러시아 아말 합창과 연극,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 어느 하나도 빠질 것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어권의 그들 전통음악과 춤으로 흥겨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마음놓고 편한 마음으로 잔치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느낀 아버지 집의 안락과 진정한 평강을 영원히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물한 우리 퀸장으로교회의 성도가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의 함박 미소가 계속 생각나서 내 입도 다물어지지 않던 하루였습니다.



송요한 목사



그레이스 무용팀



러시아어권*초청자들



왼쪽부터 이영돈선교사, Forest Hills에서 중앙아시아인 대상으로 선교사역 중이신 키르시스탄 선교사,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시는 이란 목사님



팀 켈러의 기도

-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저자/역자 : Timothy Keller/최종훈
출판사 : 두란노
출판일 : 2015

추천하시는 책은 팀 켈러 목사의 “기도”이다. 팀 켈러 (Timothy Keller) 목사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 셀러 저자이며, 뉴스위크에서 “21세기의 C. 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았다. 리더며 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뉴욕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통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속으로 뛰어 들고 있다.

기도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도의 여러 면모를 빈틈없이 살핀 후 우리가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수 있도록 도와 준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는 기도 (슬픔, 상실, 사랑, 용서)에서부터 시작해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용사였던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존 오웬, 장 칼뱅 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특히 저자 자신이 2년동안 기도의 훈련으로 얻은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나아가 기도를 한층 개인적이면서도 강력하게 만드는 길과 기도를 몸에 배게 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나 자신의 성공,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책은 우리의 눈을 넓혀 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한다.

저자는 발견한 원리들을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며 훈련한다. 언어를 배우듯이 기도 언어를 배우기에, 성경의 기도서는 시편이므로 저자는 시편에 잠기며 자신의 기도생활을 시작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이 가장 큰 도움을 얻는 것을 발견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 묵상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한 후 기도에 들어가 라고 했듯이 저자는 묵상을 건너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생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한다. 묵상이 없으면, 곧장 탄원과 간구를 하게 되고, 찬양과 자백은 별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회개하게 된다.

저자는 다음과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1. 감사와 찬양을 한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2. 고백과 회개를 한다: 용서받은 마음에서 바른 기도가 세워진다. 기도생활은 삶을 점검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없는지 자신을 검증하는 것이다.
3.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다: 어려움에 처할때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제목은 쇼핑목록이 아니다. 가장 합당한 것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4. 매일 기도하라: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게 하라. 하루에 두번씩 하나님과 만나라.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게 좋다.



학습·유아세례·입교·세례

학습자

리옥복, 박경란, 박희주, 손복순, 손연실, 정경훈, 최미선, 하린이, Elizaveta Son, Yan Hua Li (총 10명)

유아세례자

가은아, 고예은, 김성연(Jayden Jin), 백아인, 송준우, 이윤호, 이하연, 임월리암, 정시현, 한경운, Steven Chen, Jessie Xiao, Muyi Chen (총 13명)

입교자

권은지, 김나리, 김영중, 박세리, 손요한, 전찬혁, 조민주, 조운영 (총 8명)

세례자

강준희, 김룡운, 김아란, 맹재연, 박성학, 오문현, 전영화, 정희진, 최영미, 한성화, Dillon O Chen, Wei Wei Wang, Xiao Dan Wu (총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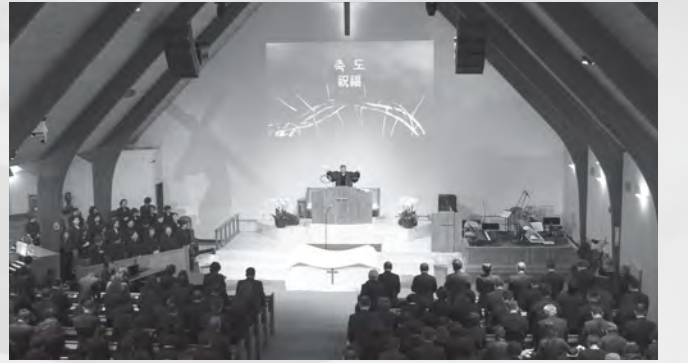
하연아, 엄마, 아빠가 만나 결혼하게 되고 너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할 거야. 엄마, 아빠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노력할게.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너희도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네가 주님 안에 바르게 자라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자. 사랑한다, 하연아. 아빠, 엄마가

이승조 양찬미



架上七言 가상칠언

홍한나 권사



1.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 눅 23:34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운 것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곳, 골고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만일 내가 그 곳에 있었다면 그들 곁에서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을 나를... 아니 지금 나는 당신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가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곳, 골고다의 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데도 당신은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 하옵소서” 이해할 수조차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용서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습니다. 멈출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됩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2.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 눅 23:43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처음으로 받은 흉악한 강도처럼 내 마음 속에도 내비치기 어려운 죄들로 가득합니다. 세월의 주름처럼 저의 마음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쌓아둔 죄의 주름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선포해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는 제게도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선포해 주옵소서.

3. “여자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 요 19:26~27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인간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참혹한 고통, 그 가운데에서도 당신은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하시네요. 아들인 당신을 메시아로 내어주기도 차마 마음으로부터 떠나 보내지 못하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그녀를 당신은 지금 참 어머니로 품어 주시는군요. 십자가 밑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여, 어미된 나는 이제 당신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모시렵니다. 당신의 그 처절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내가, 당신이 인간을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했음을 기억하고 전하렵니다. 오 나의 주, 예수여...’

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마 27:46

주님... 고통의 십자가보다, 가시관이 주는 쓰라림보다, 못 박힌 손과 발의 아픔보다... 홀로 견뎌야했던 하나님의 침묵이 주님에게는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군요. 그 처절한 부르짖음의 순간, 제 눈에서도 통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침묵을 얼마나 잘 견디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예수, 내 사랑하는 주님처럼 사무치게 하여 주옵소서.

5. “내가 목마르다”
-요 19:28

당신이 목마르다 하십니다. 해변에 신포도주를 적셔 우슬초 대에 꿰어 당신의 입에 갖다 대지만, 당신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신포도주로 사라질 수는 없었겠지요.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목말라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목말라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헛된 것에 목말라하며, 이기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로 허전함을 채우려고 애쓰며 목마른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 당신을 더 깊이 채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6. “다 이루었다”
-요 19:30

당신은 마지막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찢기신 몸이 새 생명을 열었고, 손에 난 못자국이 용서와 치유,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께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난의 쓴잔을 마셨고, 공포스러웠던 영혼의 어두움 밤을 견디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죽음은 패배하였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저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저물녘에, “다 이루었습니다. 당신이 제게 맡겨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7. “아버지 내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오니이다”
- 눅 23:46

하늘을 향해 호소하시는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애타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홀로 짊어져야했던 십자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수난의 길, 당신의 사명...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잔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영혼마저도 아버지의 손에 맡겨도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시 모든 것이 빛이고 은총입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밤에, 제 가련한 영혼과 제 연약한 삶도 아버지 손에 맡겨주시겠습니까? 내 삶의 짐, 죄의 짐을 심판의 저울대에 두지마시고 아버지 손에 놓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 좋은 예수여, 아멘.



깜깜한 절망의 밤이 환한 소망의 아침으로 빛나고,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안식과 기쁨의 산에 이르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찬란한 생명과 영광의 빛으로 밝아온 부활 절 새벽!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의가 불의를 이기며, 소망이 절망을 몰아내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승리와 환희의 날!

순결하신 주님처럼 하얀 백합으로 장식된 주님 보좌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흰 옷으로 단장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려 새벽을 뚫고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 생각하며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주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사십 여 일 동안 부르짖은 간절한 기도가 짙은 향기 되어 하늘 높이 올라간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한 새벽에.

어둠던 주님 전이 아름다운 찬양(작은 불꽃 하나가)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비한 촛불의 물결로 넘실거리며 밝아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오듯이..... 촛불처럼 타오르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마냥 행복해집니다.

벽찬 승리의 합성이 되어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를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라, 영원히,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눅16:9-13)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절망과 슬픔에 잠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주님으로, 위로와 소망의 주님으로, 생명과 사랑의 주님으로, 용서와 인내와 평강의 주님으로, 찬란한 빛과 능력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슬프지 않으며,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에 새 힘이 솟아나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이 가슴에 가득하며, 견고한 믿음 안에서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기쁨이 샘물처럼 넘쳐흐릅니다.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화시키신 주님!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능력과 권능의 주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께서 죽은 자도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요11:23-26)

세상의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한 슬픔과 고통을 주님은 친히 해결해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려 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한 절망의 순간도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 의심하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지금 해결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 사랑과 생명과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작은 옥합을 깨고 감사와 정성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목마른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신 주님, 주님이 주신 자유와 복된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제는 이 기쁨을,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비록 가진 것 없고 도마처럼 의심하며 여러 번 주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부요함으로 능력의 주님 손 꼭 잡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풍요를, 무지한 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절망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어둔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작은 불꽃 되게 하옵소서!

따스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땅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그 날까지.....

정혜경 권사

믿음, 소망, 사랑의 봄에

피어난 부활의 첫 열매



사진으로 보는 부활절

사랑으로 이기셨네
소망의 분이 되셨네
믿음을 주셨네





뮤지컬 칸타타 ‘증인들의 고백’은 예수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들의 실제 고백을 듣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감사!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행복한 두 달이었습니다.

지난 1월31일 첫 연습을 시작하여 3월27일 오후 6시에 공연을 마치기 까지 두 달간의 여정에는 많은 감사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매주 저녁예배 후에 연습이 있을 때마다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찬양대의 만찬준비가 있었습니다. 각 찬양대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빛이낸 맛나고 푸짐한 손 맛은 매주 기다려지는 ‘감사’였습니다. 갈비탕과 육계장과 햄버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단으로 ‘설레임’을 주셨습니다.

바디워십팀은 공연의 시작과 끝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두 번의 리허설과 공연을 통해 보여준 아름다운 율동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을 통한 결과인지 짐작케 합니다.

정진규 집사님과 교회 직원들의 공연 당일까지 멋진 무대 설치를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퀸즈장로교회의 ‘대표 보이즈’라고 할 수 있는 최원일 집사님과 홍안나 권사님의 매끄러운 진행이 공연을 빛냈습니다.

실제와 같은 사실감을 덧입힌 증인들의 고백은 감동이었습니다. 관객 모두를 십자가의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굵은 눈물 줄기를 쏟아낼 것 같았던 ‘유다’역 최성호 집사님의 고백은 ‘고백의 정점’과도 같았습니다.

공연 전날까지도 수정작업을 마다않고 아름다운 영상과 음향을 위해 수고해 준 방송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의 주관 찬양대는 임마누엘 찬양대였지만,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찬양대의 실력있는 찬양대원들이 합류하여 더욱 풍성한 찬양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공연을 위한 기획과 여러 제반 지원들을 아끼지 않아주신 찬양대 대장 김수산 장로님과 부대장 이광윤 집사님, 윤원상 전도사님은 매번 연습 때마다 자리를 함께 하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공연 첫 연습이 있기 며칠전 출산하여 득남하신 반주자 송소영 집사님은 산후조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연습부터 자리를 지켰고, 그 사이의 빈자리를 윤현주 권사님께서 공백없이 채워 주셨습니다. 매 연습마다 밝은 미소와 함께 피아노를 지킨 반주자 이승은 집사님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각 찬양위원회 부서들의 화합을 이끌어 낸 지휘자 소유영 전도사님의 빛나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격려과 많은 장로님들의 동참이 있었습니다. 공연에 함께한 많은 교우들의 박수갈채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준비한 장미꽃을 모든 공연자들이 받으며 행복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난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친 다음주 4월3일 저녁 임마누엘 찬양대의 2016년 단합기도회 겸 칸타타 간담회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또한 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서양 격언에 “즉시 감사하는 것은, 두 번 감사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번이라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디워십팀 : 강경아 청년, 김진의 청년, 김유미 청년, 김승희 청년, 신예지 청년, 이승재 집사, 조윤경 청년, 조지영 집사, 함경란 청년

경배와 찬양 반주팀 : 민중선 집사(피아노), 함상윤 집사(기타), 이상성 집사(베이스)

증인들 : 정진웅 청년(야고보), 조인범 집사(요한), 이정훈 집사(베드로), 최성호 집사(유다), 이정혜 권사(목격자), 이종완 집사(바라바), 이승재 집사(마리아), 김근희 집사(도마)

방송국 : 김지현 집사님, 신성근 집사님, 그리고 국원들
관리부 : 정진규 집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부활절 칸타타 ‘증인들의 고백’의 주연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2)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사순절 간증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사순절이 시작되자 새벽 벤 운전자에 자원했습니다.

첫날 AM 04:20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도착하니 먼저 오셔서 준비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빠 어디가?’ ‘나 교회에 간다’ ‘왜 이렇게 일찍 가?’ ‘나 없으면 퀸즈장로교회가 안돌아 간다.’ ‘그래! 그럼 어서 가’ 라는 아들을 위로하고 새벽 홈레스들의 거점인 subway를 타고 오셔서 교회 Gate들을 열고 고갈을 꺾고 준비하시는 노트르담의 안소니 퀸을 연상케 하는 집사님.

수많은 운행 일지 속에도 무사고, 무벌점의 최고 기록을 유지 시키시는 부장 집사님은 운행할 차들을 점검하시고 앞으로 정렬하여 시동 걸고 대기시키십니다.



깃차 사나이

차광혁 집사

일찍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지만 먼저 교회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눈이 소방울(?) 만한 집사님. 생긴 것은 장비 같은데 아이들과 부인에게 꿈쩍 못하시는 집사님.

뜨거운 커피와 도넛을 사들고 당신의 가게는 뒷전이고 교회가 우선인 장로님이 오십니다. 뒤이어 속속 믿음의 형제들이 모입니다. 정말 멋진 사나이들입니다.

AM 04:35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 하십시오 라는 격려 속에 자마이카 벤 20호는 힘차게 출발합니다.

해마다 퀸장의 사순절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올해 강대에서 주신 말씀에 따라 더 많은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으로 넘치는 많은 개근자를 주시며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대장정의 40일 간의 사순절 새벽 서원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또 다시 내년을 기대하며 벤 운전자로 예약합니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퀸장의 사나이라면 언제든 정문 초소를 방문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感谢主·在2016年带领着我首次参加40日四旬斋清晨祷告会。这一次的经历对于我来说真的很不可思议·我想若不是圣灵带领着我·我不会坚持参加清晨的祷告会。透过这40天的清晨祷告·让我深深体会到了圣灵在不断的浇灌和带领着我。对于以前的我来说·我更多的时候是凭着自己的血气做每一件事情·对于自己所作的每一件事情·说过的每一句话·我都不会觉得有任何的不妥当·反而觉得自己是对的。我们都知道·主任牧师金星局牧师希望借着这四旬斋清晨祷告会让弟兄姊妹们能够更加渴慕的寻求主圣灵的降临·我当然也不例外。

透过每天清晨与主的亲密接触·让我与主的关系也变得更加密切。感谢赞美主赐给我有祷告的权柄·让我无论在何时何地都可以与他沟通。也正因为这样·魔鬼撒旦就变得不安分了。撒旦利用了我身边的一个初

信主的朋友来试探我·来挑战我的底线。若换作是以前的我·我一定是会和那个朋友争辩到底·更何况我还是有理的那一方。感谢赞美主!在面魔鬼撒旦的试探的时候·我的内心当中有一个声音告诉我“我要冷静”·要用好的态度跟那个朋友解释·更何况我什么都没有做过·不需要为这件事情动气。我内心中唯一的担忧是:这个朋友会不会因为这件事情而对基督徒有误会·我会不会让她在信主的这条路上跌倒呢?感谢主!这个朋友了解了事情的真相·知道跟我没有任何的关系·她反而觉得对我有些不好意思。

感谢天父聆听我的祷告·感谢天父用圣灵浇灌我的心·我的灵·让我可以在生活中为他做美好的见证。正因为我们天上的父是完全的·作为他的女儿·我也要努力的成为像天父一样完全的人。将荣耀·权柄都归给坐在至圣宝座上的父!阿门!

40日四旬斋清晨祷告会感

40일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를 마치며... 郑丽芳

2016년 처음으로 저를 40일 사순절 서원새벽기도회로 인도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저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만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새벽기도회를 견지할 수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저는 성령님의 부어주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전의 저로 말하자면, 많은 경우에 저의 혈기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고, 내가 한 일이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모든 경우에 나는 맞다고 여겨왔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더욱 더 간절히 갈망하고, 희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일아침,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통하여, 저와 주님과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소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했기에 사탄마귀도 조용히 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내 주위에 있는 초신자 친구를 이용하여 나를 시험하려 하였고, 나의 한계에도 전하였습니. 만

약 예전의 나였으면 그친구와 끝까지 논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사탄마귀가 시험할 때내 마음 속에는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정하자!” 좋은 태도로 그 친구와 얘기하자. 하물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해서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마음 속에 유일한 걱정은 이친구가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을 오해하지는 않을까? 나로 인하여 그 친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길에서 넘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는 그 일의 자초지종에 대해 알고나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나서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그를 위하여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써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퀸장 제일의 관심사는? 나의 최고 관심사는?

최원일 집사/ 전도폭발위원장

우리교회가 세계적인 상을 받게 된다. 국제전도폭발본부는 지난 2월말 플로리다에서 지구촌 각 대륙을 대표하는 국제이사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퀸즈장로교회를 D. James Kennedy Ministry of Excellence Award (이하 “D. 케네디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퀸즈장로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가 우리 교회 제일의 관심사임을 행동으로 증거해 왔다. 26년 넘게 52기를 거치며 지속해온 전도폭발훈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도훈련에 있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와 단체에게 주어지는 D. 케네디 상을 우리 교회가 수상하게 된 것은 전도폭발 훈련을 매개로 퀸즈장로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사이자 앞으로 걸어가길에 대한 기대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상급에 더하여 이땅에서의 상급을 통하여 우리를 주목하고 격려하고 계신 것이다. 전도폭발 (Evangelism Explosion)은 초교파적, 국제적인 기독교사역으로 평신도를 무장시켜 전도를 생활화하기 위한 전도운동이다. 플로리다의 Fort Lauderdale에 있는 코렐리지장로교회에서 D. James Kennedy 목사 (1930-2007)에 의해 1962년에 시작된 이래 교파와 국경을 넘어 성장 발전하여, 올해 현재 세계 211개국 4만여 교회에서 이 훈련을 진행 하고 있다. 전도폭발국제본부 발행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만 전도폭발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8백40만명에 달한다. 13주간의 고강도 훈련인 ‘클래식 전도폭발’, 청소년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세대 전도폭발 (XEE)’, 생활속의 전도를 강조하는 ‘매일 전도’, 어린이들이 전도의 중심이 되는 ‘어린이 전도폭발 (Hope for Kid)’, 은퇴후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전도폭발’, 교도소를 방문하여 전도하는 ‘감옥전도폭발’ 등 다양한 맞춤형 전도방식을 도입하여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변할 수 없는 복음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 우리 교회 전도폭발 훈련은 1988년 6월 텍사스휴스턴에서 열린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장영춘 목사님께서 수료하

고 돌아와 제 1기 클래식 전도폭발 훈련을 개설한 이래 올해로 28년째 지속되어오고 있다. 클래식 전도폭발훈련의 경우 그동안 51기를 거쳐 모두 37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고, 지금 진행중인 52기에 1단계에만 15명의 훈련생이 훈련받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비전 - 다중언어 전도훈련을 통한 다민족 전도

‘50’ 을 넘어가는 역사성은 역대 이 훈련을 거쳐간 이들 뿐 아니라 우리교회 전도폭발 훈련사역팀에 또 다른 차원의 책임과 비전을 함께 요구했다. 50기부터 신설된 영어 및 중국어 전도폭발훈련은 이런 요구에 대해 다중언어를 매개로 다민족 복음화에 앞장서 뛰겠다는 우리 교회 전도폭발 위원회의 응답이었다. 그 바람이 열매를 맺어 50기 이래 지난 세 학기 동안 클래식 훈련에서만 25명의 한국어 훈련생에 더해 11명의 영어 훈련생, 6명의 중국어 훈련생이 각각의 언어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언어적 한계를 뛰어 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다중언어 전도폭발훈련의 불씨는 곧바로 영어 훈련수료자들과 이들을 훈련시킨 교사들을 통해 우리 교회 영어예배부 (QPEM)으로 옮겨 붙었다. QPEM이 설립 된지 20년만에 처음으로 작년 여름 QPEM성도들을 대상으로 “매일전도” 전도폭발 훈련을 개설하여 13명의 영어권 수료생을 새롭게 배출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2월부터는 10주 코스 “신세대 전도폭발 (XEE)” 을 개설하여 40여명의 영어권 교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도 현장에서 수많은 영접과 간증을 목격하며 ‘훈련된 전도자’로서의 수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QPEM은 이들을 중심으로 매월 두 번에 걸쳐 길거리 전도 및 플러싱 커뮤니티 전도(Community Evangelism Outreach)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길 건너에 새로 들어설 성전이 실질적인 다민족 복음화를 이

루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기초공사’ 가 성전이 어지기 전부터 전도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 거룩한 기초공사에 전도폭발훈련이 시기적절하게 좋은 쓰임을 받고 있으니 바야흐로 퀸장의 전도폭발훈련이 ‘폭발’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거룩한 폭발의 뇌관에 불을 붙인 이들이 어른들이라면 그것을 이어 마침내 밤하늘의 별처럼 광활하고 아름답게 수놓을 이들은 우리의 어린이들이다. 40대 때 전도훈련을 받은 어른이 그의 남은 일생동안 전도할 가능성은 엄청나다. 이에 비해 10살때 전도훈련을 받은 한 어린이가 그의 남은 일생동안 전도할 가능성은 ‘실로’ 엄청나다. 우리 교회는 이 가능성에 주목하고 강지영 전도사님과 차평화 전도사님이 중심이 되어 지난 2월 어린이 전도폭발(Hope for Kid) 훈련을 개설 했다. 10살 안팎의 어린이 20여명이 참여하여 복음제시 훈련을 받은 그 결과는 벽찬 은혜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의 복음 제시 시연을 접한 부모님까지 은혜와 도전을 함께 느끼는 거룩한 감동의 현상이었다. 훈련된 어린이 복음전도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된다.

뉴욕 메트로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하는 퀸장의 전도폭발사역

퀸장 전도폭발위원회의 복음을 향한 이 열정은 플러싱과 뉴욕 메트로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우리교회 전도폭발 교사로서 섬기는 홍정택(Jonathan Hong) 집사가 지난 여름 우리 교회 해외 단기선교에 동참하여 인도까지 날아가 전도폭발 훈련을 ‘수출’ 시킨 것이다. 홍 훈련자는 지난해 8월17일부터 6일간 인도 텔렝가나(Telengana) 지방의 카맘 (Khammam) 지역에서 현지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루 6시간 이상 전도폭발 집중 압축훈련을 실시하고 돌아왔다. 이 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의 대표

언어인 힌디어가 아닌 텔루구(Telugu)어다. 현지인 목사를 통해 영어를 텔루구어로 통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27명의 텔루구어 및 6명의 영어 전도폭발 수료생을 그곳 카맘 지역에서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이들이 하루 8시간 가량 옛세 동안 진행한 현장실습을 통해 다른 수 백여명의 텔루구어권 인도인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물론이다. 이는 제대로 훈련받은 전도자라면 그가 비록 단 한 사람 일지라도 언어와 인종 및 문화의 벽을 넘어 열방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우리 교회 전도폭발위원회는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의 다중언어 훈련기반을 계속해서 탄탄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또한 ‘훈련자를 훈련’ 하는 전도폭발훈련 교사를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 국제전도폭발 본부 및 미주 한인본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임상훈련과 지도자 세미나에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자원을 파견할 것이다. 오는 5월 중순 아틀란타에서 5일간 열리는 전도폭발 중국어 훈련지도자 컨퍼런스에 첸위지 전도사님을 포함 5명의 중국어 예배부의 리더들이 참가한다. 이들이 전도폭발 지도자 훈련을 받고 돌아와 플러싱 중국 민족 커뮤니티에 일으킬 복음의 부흥을 기도하며 기대한다.

오는 6월 12일 오후 4시에배에는 모든 교우들과 전도폭발 국제본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52기 전도폭발 수료예배 및 D. James Kennedy Ministry of Excellence Award 시상식이 열린다.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로서 우리 교회의 제일의 관심사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는 기쁘고 거룩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Orison

Greetings and blessings from our College Ministry! If you have not heard yet, the college ministry has a new name. We have gone with Orison. Orison is the latin word for prayer and we hope to be a ministry rooted in the discipline of prayer for the younger generation.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Philippians 4:6).

God has been very gracious and has been doing amazing things these past four months. Our annual winter retreat garnered 60+ members to worship, pray, and fellowship together for 3 days & 2 nights. Throughout the 3 days, what originally began as a very awkward environment due to the students who grew up at the church with the students who have found our church during their college years, the Holy Spirit truly began transformative work as He continued to unite all the students under Christ. By the end of retreat, new friendships had been made and all students were proactively praying for one an-

other just as the Bible calls us to. Pastor Kiwi himself preached messages on the main theme of "You Have Been Called," and we continue to strive together to live as those who are called, beloved, and kept by our Lord Jesus Christ (Jude 1).

We, now, have an outing on the last Friday night of every month! The purpose of this evening is to live missional living in alignment with the vision of the church. College students often find it difficult to invite their non-believing friends directly to church so we hope to use the events and evenings as a way to introduce non-believe students to the greater community before inviting them to a Sunday of Friday Worship. In February we went ice-skating with Senior High. We want to continue building relationships with our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and hope to do more fun fellowship outings with them in the future as well.

Less than twelve hours after the ice-skating trip, we took a van full of students to the mountain slopes for a day of skiing and snowboarding. It was a great time of really getting to know one another while having a blast carving down the mountain slopes.

Though the outings are fun, most of our Friday nights are dedicated to worship and prayer as a ministry. We have dinner fellowship, a time of praise, a brief hearing of the Word, and prayer time. Going through the Gospel of Luke and spending an extended time in prayer has been Spirit-filled and edifying. Please continue to pray for our ministry and we look forward to be praying for the church and all the ministries within it as well!

QPEM College Ministry
진기웅 전도사
Kiwi Jin JDS



QPEM College Retreat



QPEM Ski Trip



QPEM College Ministry- Friday Night Worship

기도를 먹고 자라는 새싹



2016년 3월 6일 영아부 예배실에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사랑의 열기가!

사랑과 사랑의 기도를 부어주시기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 또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으로 앞서가시는 분들이 자라나는 예쁜 새싹과 같은 우리 영아부 아가들과 이들의 가정을 위해 든든한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겠다며 격려해 주시고 약속하신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또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사랑의 나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주님만이 아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오신 믿음의 어른들 모습은 아름다운 우리 아가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있고 아름답고 향기로우니까 느꼈습니다. 주안에서 맘껏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어른들이 계심을 감사하고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한 맘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아가들이 있음에, 그 가정들이 있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의 어른들 모두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먹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가들도 분명 성령 충만 하리라 믿습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 기도의 끈과 굳건한 기도의 버팀목이 우리 아가들의 평생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유업으로 값없이 주시는 주여! 주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며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아부 부장 윤지영 권사

우리 아가들의 기도

-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맘으로 가득차서 감사로 기도하게 해 주세요.
-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셔서 기도에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강하게 해 주세요.
- 기도의 열매를 바라며 기도할 때 저의 자람 가운데서 많은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 저도 기도 안에서 잘 자라 이렇게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있게 해 주세요.
-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로 인해 더욱 부흥하게 해 주세요.
- 제가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자라도록 끝까지 지켜보실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 주세요.
- 언제나 저의 버팀목이 되는 기도로, 소망의 말로, 제가 따를 삶으로 든든하게 서 주세요.
-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대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힘 있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세요.



가득 채워진 롱아일랜드 예배당

고부영 전도사

올해 4교구 롱아일랜드지역은 처음으로 11지역이 3번으로 나누어서 연합 대심방 예배를 목사님을 모시고 드렸다.

오늘 심방한 이 지역의 특성은 젊은 세대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다.

박정봉 집사님 가정에서 14세대 51명이 참석하여 연합 예배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는데 은혜롭고 풍성한 천국 부흥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사님 집에 도착하니 여기저기서 차를 파킹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들이 도착하여 음식을 내리고, 저녁시간인데 조용한 동네가 잔칫집 분위기였다.

아직 지역식구들이 다 모이지 않아서 박정봉집사님 가정부터 시작하여 도착한 순서대로 먼저 목사님께서 축복기도를 하시고 예배 마친 후에 계속 가정 가정마다 기도를 해주셨다.

예배준비가 되었다하여 장소를 옮겨갔더니 1층, 2층, 지하실까지 가득 모인 수는 50 여명이 넘었지만 넉넉히 감당하는 장소이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다들 ‘와~~롱아일랜드 퀸즈장로교회 하나 만들어졌네...’ 가득한 채워진 예배당이 되었다.

563장 ‘예수사랑하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이사야 30:21-26’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 순발력하면 또 항상 앞서 가신 목사님께서 ‘박집사님 통역해주세요’ ... 훌륭한 통역관 박집사님의 동시통역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렸다.

먼 길에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가정들에게 “바른길로 가라” (21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좌우로 치

우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른길로 가길 원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신다. 먼저 부모들이 바른길로 가야 아이들도 배우게 된다

“버려야 한다” (22절): 말씀 속에 버릴 것을 버리라 했는데 나쁜 습관, 관계, 성격들을 버릴 때 가정, 자녀 사업의 축복을 주신다.

(23절) 자녀들이 잘 자라는 축복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고 퀸즈장로교회에서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란다.

(25-26절)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정의 부부와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삶이 되어서 용서와 이해로 받아들이고 고쳐지고 바른길을 가는데 목숨 걸고 순종하며 가라, 버릴 것이 무엇인지 다 버리고 칠 배의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자.

말씀을 마치고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모였는데 어느 부페식당보다 훌륭하고 멋진 레스토랑이 되었다. 지역을 떠나서 그룹들이 형성되어서 식사와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목사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가 되어서인지 육의 양식은 더 달콤하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지 않았을까?

후문에 의하면 남은 식구들을 11시가 넘도록 이어지는 교제가 너무 좋았다고 하였다.

내일 새벽예배가 있어서 먼저 교회로 출발하는 차안에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하였더니 목사님께서 ‘먼 길을 오가며 헌신과 봉사 순종을 하는 예쁜 식구들인데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마음껏 축복해야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힘껏 축복하신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근심 있으라”



푸른 싹을 내기 위해 나무동지는 물을 머금으며 그 검은색을 더합니다. 푸른 싹은 자신이 고통하며 튀어나왔다고 폼을 내지만 그 밑에는 온 힘을 다해 밀어준 동지가 있습니다.

여기 힘을 다해 자손을 키우고 다듬으며 손마디가 굵어진 아름다움들이 모였습니다.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을 뒤에 진 굵은 어깨에 학생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전에서 기쁨의 만학도가 되어 여생을 더욱 보람되게 보내고자 합니다.



벌써 27년 째입니다. 성인대학생 아버님을 섬기던 장로님이 이제 성인대학생으로 입학도 합니다. 3월 15일에 2016년 봄학기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김성국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새 힘을 얻으리니’란 제목으로, 준비하시는 특히 천국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승리주시는 여호와 닛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신지요.....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여 힘 얻고 열심히 성인대학 생활을 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봄 학기는 경건예배와 영어, 그리고 어르신들의 핸드폰 사용을 도와주는 스마트폰 반, 요가를 포함한 건강체조, 한의사가 직접 지도해 주시는 수지침반, 미술교실 그리고 뜨개교실이 있습니다. 각자의 취미에 맞는 반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수강하면 됩니다. 몇 번의 특강이 있습니다. 봄철 건강관리와 알리지 방지를 위한 건강관리 등 주로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강의들입니다.

첫날 수업부터 120여명의 학생은 열심을 다합니다. 각 반마다 웃음꽃이 필니다. 한 학생도 억지로 앉아 수업 받지 않습니다. 비록 돋보기는 걸쳤지만 두 눈은 더욱 영롱합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서 손주 앞에서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젊음이 못지않은 순발력도 키우려 합니다. 햇볕이 따스한 날에는 양지바른 풀밭에 도시락 싸들고 나가 장기 자랑도 할 것입니다. 이 소박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모두를 환영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성인대학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환한 미소로 찾아와 굵어진 손마디를 잡아 주신다면 더욱 행복한 성인대학이 되겠지요. 함께 굴 한 봉지도 환영합니다.

노선희 전도사



March 26 ~ 28 Quality Inn, Stroudsburg, PA

주님 안에서 심과 관계 회복

여성교회 수련회 말씀정리

3월28일(월) / 수련회 개회예배 김성국 목사
심 (마 11:28-30)

진정한 심은 healing이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이다. 수가성 여인, 열두 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회복되었다.

1. 심의 대상
수고, 짐을 진 자들, 상처와 아픔, 실망, 좌절에 있는 제외된 자 없이 모두를 예수님은 부르신다. 진정한 회복은 휴양지나 다른 어떤 곳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
2.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심이 온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마음에 가시를 없애는 심을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낮아지며 온유한 마음은 훈련으로 배워야 된다.
3. 예수님의 멍에를 매고 가야 심을 얻는다
심은 또 다른 곳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 삶의 현장에서 멍에를 매 때 모든 문제에서 심을 얻게 된다. 우리의 모든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으로 힘든 것이 될 수 없다.

3월28일(월) / 저녁예배 송요한 목사
사랑과 믿음을 통한 기적 (막2:1-12)

중풍병자는 4명의 믿음의 친구로 인해 기적을 맞았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1. 사랑을 통해 기적이 나타났다
기적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사랑은 관심, 배려이다. 이번 노루스 러시아어권 전도집회에 오신 회교권 사람들이 온 성도와 각 부서의 관심있는 사랑에 너무 놀라했다.

- *사랑의 방법 3S***
- 1) Say ;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알 수 없다. 마음이 전해지는 말은 기적을 일으킨다.
 - 2) Show ; 사랑을 보여주며 봉사, 섬김이 나타나야 한다. 우크라이나 인사법 중에 귀를 만지며 눈을 쳐다보며 사랑한다고 하는 인사법이 있다.
 - 3) Share ; 나누지 않으면 사랑을 분명히 전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함께 하셨다. 이것이 사

여성교회 연합 수련회

량이며 기적이다.

2. 믿음을 통해 기적이 나타난다

1) 친구들의 믿음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답인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다.

2) 연합된 믿음

시간, 형편, 각자 직업 다 달랐지만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네 명의 친구가 하나 된 믿음의 연합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

3. 방해를 보지 않고 뚫고 나가는 헌신

지분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헤치고 나온 헌신을 예수님은 보셨다.

1) 봉사로 헌신해야 한다

섬김의 사역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하면 기적은 없다.

2) 시간으로 헌신해야 한다

자기 일을 포기하고 나온 친구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3)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남의 지분을 뚫은 일에 책임 배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일도 물질의 헌신이 필요한 일로 그곳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 일어날 수 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방해를 이기는 헌신으로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난다.

3월29일(화) / 아침예배 김재형 목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 1-6)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1.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높아질 수도, 낙심 할 수도 없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의 삶의 고비마다 더욱 쉼을 갖는 삶이 되었다.

2. 참된 쉼을 위해 지금의 쉼이 진정한 쉼인지 돌아보라



문제 해결에 내가 항상 있다면 삶의 한계에 부딪히므로 참된 쉼을 가질 수 없다.

진정한 쉼은 문제 해결을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쉼을 가질 수 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평생 시행하시겠다는 불변의 약속을 하셨다.

3. 정말 쉬어야 한다

다윗의 고백에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뿐임을 드러내고 있다.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뿐이다. 우리도 여호와와 집에 거하므로 다윗과 같은 고백과 쉼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3월29일(화) / 특 강 오인수 목사

백세 인생, 이모작(二毛作)

노령의 인구가 늘어가는 현세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성경의 대다수 인물은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삶을 살았다.

아브람→ 아브라함의 변화, 노아의 순종 후의 삶,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벗고 민족을 위한 마음(출2:11)을 가진 후 40년 목자 광야생활을 거치며 하나님 방법의 완성된 삶을 살았고 그 중에 갈렙은 대표적으로 노년을 더욱 강건하게 잘 산 인생이다(수14:11). 바울은 끝까지 쫓대를 향해 나감으로(빌 3:12) 완성된 삶을 살았다.

현대사에서 인생의 후기를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성공적인 삶을 산 모델로,

오드리 헵번(유니세프 대사로 에티오피아 어린이를 위한 헌



신), 지미카터 전 대통령(가정 성공적인 전직 대통령으로 헤비 타트와 주일학교 교사로의 섬김) 그리고 은퇴 후에 그림을 배워 미국의 샤갈이란 명칭을 받은 103세까지 젊게 산 미술가 Harri Lieberman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새롭게 찾아 이모작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 노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자.

3월29일(화) / 저녁예배 송요한 목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2-13)

‘시험’ 이 오면 평강, 쉼을 빼앗기는데 살아가는 동안 쉼 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본문 속에서 살펴보자.

1.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

1)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이는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고, 진급하고 확인하기 위함이다. 성숙을 위한 것으로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내면을 더욱 잘 알기 위함이다.

2)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알게 하기 위해

요나는 욕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니스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마치 잘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 후 그가 당한 고통의 폭풍과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축복이었다.

3)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으로 시험과 연단을 통해 갖게 된다.

2. 여러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은 사람, 환경, 시험의 종류마다 다르다.

1) 아브라함의 시험 - 시험적 고난

고난을 동시에 가져오는 시험이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

리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었지만 끝까지 순종하였다. 이런 시험은 큰 은혜를 받은 후에 평안할 때 올 수 있다. 순종하므로 믿음을 성숙시켜 하나님께 ‘이제야’ 라는 도장을 받자.

2) 다윗의 시험 - 징계적 고난

자기의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이다. 이때는 감사해야 한다. 철저히 징계 받은 것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이다. 피할 길은 오직 회개뿐이다.

3) 나사로의 시험 - 수용하는 고난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다시 살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4) 바울의 시험 - 사역적 고난

고후11:23-27 바울의 사역에는 고난이 있다. 이 고난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한다. 이 고난은 충성으로 감당해야 한다.

5) 욕의 시험 - 연단적 고난

이 시험은 시작과 끝이 있는 시험으로 다 통과해야 한다.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함이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 승리를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때로는 안고 가시기에 염려할 것 없다.

3월30일(수) / 아침예배 오인수 목사

안식 (창 2:1-3)

안식은 일을 마쳤을 때 할 수 있다. 천지 창조 이전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서로 찬양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셨다. 완벽하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관계에 막힘이 없는 상태가 천국의 모습일 것이다.

창조의 목적은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다. 천국은 곧 안식의 장소이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시고 안식하셨다. 십자가의 구원사역과 요한계시록에서도(21:6-7) 재창조로 인해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라’ 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안식을 기억해야 하며 다 이루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할 수 있는 것이다. 정하신 주의 날에



나와 그의 행하신 완전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인이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 성도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날, 안식의 날에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한다.

3월30일(수) / 오전예배 김성국 목사

사라의 믿음 (히 11:11)

사라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허탈감, 분노 배신감등은 믿음을 가짐으로 사라(열국의 어머니: 스케일이 달라짐)가 되었다.

믿음 (히 11:1-3)의 특징은.....

1.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을 바람)
2.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
3.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음 속에서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음)

사라의 나이 많음, 단산, 그녀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가장 절망의 시간에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이다. 믿음은 얻는 것으로 비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이삭(웃음)을 주

어 진정 웃게 만드신 하나님, 최후에 웃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벧전 3:6 “사라의 딸이 되라” 믿음(순종)이 기초가 된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두려움이 없다. 창 22장의 아브라함의 시험 당함에 사라는 어떻게 대처하였나? ‘사라의 침묵’은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창조의 절정은 마지막 창조물로, 돕는 자로 남자에게 주신 여자이다. 사라의 믿음 속에서 그의 마음을 갖고 살 때 진정한 웃음과 심을 얻을 수 있다.

3월30일(수) / 폐회예배 김성국 목사

버시에게 (롬 16:12)

버시-단 한번 성경에 언급되었어도 어떠한 삶을 살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평가 되었는가 더욱 중요하다.



이모작의 새 출발을 시작하며

박광자 권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루하흐의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시간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열정적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동안 움츠려져 있었던 제가 따스한 성령님을 만나 기쁨과 새 삶을 찾게 되는 이모작 인생이 시작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제에게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여성교회 연합 수련회를 올라갈 수 있는 결심을 하

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합여성교회 수련회의 주제는 ‘주님 안에서 심과 관계의 회복’ 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가운데, 참다운 심은 주님 품안에서만 온전한 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하며 겸손과 온유로 다듬고 훈련되어야 하며, 사랑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적의 체험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사람이 싫고 말하는 것도 싫어졌으며 모든 것이 두려워졌으며 무기력해지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며 나 자신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 혼자 놔두지 않는다고 고백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위로와 힐링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라의 믿음을 기초로 말씀을 붙잡고 속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기도의 어머니로 살기로 다짐하며 참다운 주님 안에 심과 기쁨으로 본질이 바뀌는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이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허리의 큰 수술을 받고서 이제 끝이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만 나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부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다시 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모작의 인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사순절과 수련회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1. 주 안에 있었다.
‘주 안에’ 는 주의 생명과 평강 안에 주재권이 주의 손에 있는 삶을 살았다. 눅 6:46 -주를 부르는 자는 그의 말대로 행하는 자이다.
2. 많이 수고하였다.
교회 역사에서 수고는 탈진에 이를 정도의 수고를 말합니다. 주님의 수고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신 것이다.
3. 사랑받았다.
일을 많이 함에 스스로 자랑 말며 하나님이 알아주심에 관계를 더욱 좋게 하며 침묵하여야 하는 인격이 우선되어야 한다.



3월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퀸즈장로교회의 모든 교우가 온 맘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하 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